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법정 정원 미달 심각

광주 11곳 정원 240명인데 현원 151명...양육 환경 열악 市 예산난에 개선명령도 어려워...하반기 14명 증원 계획

광주지역 아동양육시설이 법정 종사자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시설이 갖춰야 할 인력도 늘었지만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는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수년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아동단체 관계자들은 현재의 인력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동양

육시설 11개소(자립지원·전용시설 제외)가 법정요원 240명(2015년 기준)에 비해 현원 151명(62.9%)에 불과한 상황이다. 11개소의 입소 인원은 551명이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머무는 보육원과 같은 시설이다.

아동양육시설의 법정 종사자 대비 직원 충원을 미달 사태는 지난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시설 아동당 종사자 수가 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0~2세의 경우 시설 아동 3명당 종사자 1명에서 2명

당 1명으로, 3~6세는 7명당 1명에서 5명당 1명으로, 7세 이상은 10명당 1명에서 7명당 1명으로 관련법이 강화된 것이다.

관련법 개정 이후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아동양육시설이 그룹홈 등 다른 시설과 달리 지역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방양육시설이기 때문이다. 5~8명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그룹홈은 국가보조사업으로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게 돼 있다.

아동양육시설이 법정 종사자를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나서 개선 명령 등을 내릴 수도 없다. 해당시설에서 결국 지자체에 관련 예산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또 시설에 불

이익을 줄 경우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능보강사업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아동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열린 광주복지대토론회에서 “현재 법정 종사자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인력으로는 아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법정 수준으로 준수해 배치하고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14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며, 부족한 인원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동네 동장 우리 손으로 뽑았어요”

광주 수완동 3명 지원...주민 투표로 후보 선출

“우리 동네 동장 우리 손으로 뽑았어요.”

22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은 빛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광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완동 주민들이 수완동주민센터 동장을 뽑기 위해 투표에 나선 것.

주민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초등학교 대강당에 모여 동장 후보자 3명의 운영계획 발표와 패널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후 기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투표에 참가한 주민은 전체 선거인단 1000명 중 320명.

투표 결과 광산구청 김승현 기획관리실장이 수완동장 후보로 추천됐다. 김 실장은 광산구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8일 정기 인사에서 승진, 수완동주민센터 동장 주민 투표는 지난 2014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광산구는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보장

하고, 주민이 일할 사람을 직접 선택·추천하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수완동에 동장 주민 투표를 도입했다. 광산구는 이후 도산동, 첨단1동, 송정1동, 운남동, 우산동 등 수완동을 포함해 모두 6개 동으로 확대했다.

특히 인구가 7만9000명인 수완동은 단일 동으로 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7만 이상의 대동에서는 4급(서기관) 공직자를 둘 수 있다. 수완동은 5급(사무관) 공직자가 동장을 맡는 곳과 달리 광주에서 유일하게 4급 공직자가 동장직을 수행한다. 동장 후보자 3명도 4급 승진을 앞두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 주민들의 마을활동 참여를 높이고, 승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배려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식

2016. 6. 22.(수) 17:00

광주시·전남도·검찰·경찰 등 광주·전남지역 8개 기관은 22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강인철 광주경찰청장, 김희재 광주지검장,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박경민 전남경찰청장, 이정재 광주선진교통문화범시민운동본부 대표. <광주시 제공>

광주·전남 8개 기관 배려교통문화 확산 앞장선다

지자체·검찰·경찰 등 업무협약 교통안전 공동 홍보·캠페인 추진

지자체·검찰·경찰 등 광주·전남 8개 주요기관이 교통문화 개선에 앞장선다. 참여기관은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광주지검, 광주경찰청, 전남경찰청, 광주선진교통문화범시민운동본부 등이다.

광주지검은 22일 이들 기관은 이날 광주 시청에서 배려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력을 강화해 배려교통문화 확산 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8개 협약기관은 배려교통문화 실천을 통한 선진교통문화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교통안전지수·교통문화지수를 연계한 선

진 교통환경 개선책 공동개발 및 추진, 시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전문가·시민단체와 공동 협업체계 구축,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업무지원 및 정보제공, 지속적 성과향상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한다.

실무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교통문화 개선 업무 계획과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교통문화지수 하위 3개 항목인 불법주정차, 정지선, 무단횡단을 중점계도·단속하고 교통안전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범도민운동을 펼치고, 광주지검은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악성 불법주차 등 3대 위험행위 근

절에 전격하고, 교육청은 사고다발지구 및 시범학교 선정·교육에 노력할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 역할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자리”라며 “유관기관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중심·생명존중 교통안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광주와 전남의 교통유관기관·단체가 함께 한 만큼 선진교통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재 광주지검장은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을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는 범시민운동”이라며 “각 기관이 협력, 배려교통문화실천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매매 단속중 여중업원 쓰러져 원인 놓고 업소-경찰 공방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30대 여중업원의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가운데 그 원인을 둘러싸고 업적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해당 여중업원은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삼우거리의 한 성매매업소를 들이닥쳤다. 6명의 경찰관이 건물 2층 업소에 들어서 성매매 관련 물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중업원 A(38)씨가 쓰러졌다. A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벗어난 일로, 폭행이나 불법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은 “단속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경찰서 신설·통합관사 신축 추진

전남도, 섬 치안 강화 대책 발표

전남도가 22일 도서지역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신안경찰서 신설,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통합관사 신축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일련의 섬 지역 인권 침해 사례의 주민 원인이 ‘치안력 공백’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가 이날 발표한 도서지역 인권침해 예방 종합대책 따르면 최우선 과제로 치안력 강화를 위해 지난 13일 이낙연 전남지사가 행자부장관,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한 ‘신안경찰서 신설’을 꼽고, 국회와 행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섬 지역 시급한 안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진로소 54개소에 1억6200만원의 취약지역 50개소에 10억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하고, 위험지역 150개소에 15억원을 들

여 가로등도 설치한다.

또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25개소에 비상벨과 경광등을 설치하고, 읍·면 출장소 직원 및 교원 등의 관사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관사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부에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섬 여성근무자를 대상으로 경찰청과 협조해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개인 안전정보장치인 ‘원터치 SOS’, ‘112 긴급신고 앱’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섬 지역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위해 읍면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별 기관단체협의회 조직을 활용한 현장점검 활동과 마을별 ‘인권지킴이’ 구성을 통한 인권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청, 우체국, 농협 등 유관기관의 섬 지역 종사자 관사 등에 대한 대책은 동시에 추진되도록 관계기관 협력할 예정이다.

“누군가를 죽이겠다”에 깜짝...지구대 앞 택시 세우자 흥기 휘둘러

“누군가를 죽이겠다”라는 승객의 말에 놀라 경찰서 지구대 앞에 택시를 세운 택시기사에게 흥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이 쇠고랑.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임모(44)씨는 이날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오지동에서 유동 한 병원으로 가던 택시에서 “누군가를 죽이겠다. 택시비

를 줄 테니 가달라”라는 말에 놀란 택시기사 임모(57)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은 혐의.

○임씨는 놀란 정씨가 경찰서 지구대 앞에 택시를 세우자 흥기를 휘둘러 뒤달아났다가 45분 만에 자수했는데, 경찰은 “임씨가 최근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찾기에 이날 고소인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광주시내 (062)	전남 (061) · 전북 (063)
북구 동광 264-2012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오봉 522-7752 우산 512-8116 중흥 654-2985 중남 222-9440 동구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흥 222-1896 중장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북문 651-1833 북봉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동암 803-0311 화정 369-0583 월곡 941-9174 광산구 천단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	동부권 고흥군 842-2121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광양시 792-8111 보성군 852-9646 순천시 746-8111 여수시 692-0997 중부권 나주시 335-5501 강진군 434-6830 담양군 383-8116 영암군 471-1717 장성군 394-0400 장흥군 863-8822 화순군 374-4423 서부권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신안군 278-8111 영광군 351-1004 완도군 554-6677 진도군 543-0100 함평군 324-8111 해남군 537-6767 전북권 군산시 467-2500 정읍시 531-5544 순창군 652-1920 남원시 626-1601 고창군 010-2815-2267 부안군 582-8118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за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맑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면

IPALGI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